

## 해명자료

문의 : 방송진흥기획과 김광동 팀장(☎750-2315)  
방송진흥기획과 이상수 사무관(☎750-1041) seagull@kcc.go.kr

# “대기업에 대한 종편 광고 압박” 사실과 달라

## -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 -

'11. 12. 9.(금) 한겨레 인터넷판에 보도된 “최시중, 대기업 임원들 만나 종편에 광고 압박”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산업 활성화와 광고업계 전반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6일과 8일 양일간 업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5개회사 광고주 임원, 2개 광고회사 사장, 광고학회장 등 광고업계와 학계의 의견(12.6.)과 지상파, 종편, MPP, 중소PP(PP협의회장),케이블협회 등 방송사업자들의 의견(12.8.)을 균형있게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6일 간담회에는 광고주 뿐 아니라 학계를 대표해 광고학회장과 광고대행사 대표들도 참석했으며, 광고주와 학계에서는 광고총량제 확대 및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 편성규제 완화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시장 경쟁촉진과 광고규제 개선 등을 통해 2015년까지 광고시장을 GDP 대비 1%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이런 맥락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광고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내수 등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종편을 포함한 특정 사업자들에 대한 광고지원을 요청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는 간담회의 성격과 최 위원장의 발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업계 의견청취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각 산업 분야 대표들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도 지난 1월 19일 열린 광고업계 간담회에 이은 통상적인 업계 간담회였음을 밝힙니다. 끝.